

대전 서구

# 박찬호, 코리아 특급서 예능·해설가로 '만능 입담'

충청남도 공주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박찬호는 공주중동초 3학년 때 타자로 야구를 시작해 공주중 3학년 때 투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1993년 한양대 1학년 시절 미국 버펄로 유니버시티에 참가해 최고 시속 156km 강속구를 던지며 '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처럼 야구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경기를 참관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은 그를 영입하고자 경쟁을 벌였다. 이듬해 박찬호는 미국 프로야구팀 LA다저스와 120만 달러에 계약하고 메이저리그로 향했다. 한양대 2학년 재학 중 미국 무대에 진출해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로 이름을 날렸고 그해 4월9일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데뷔 후 17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며 힘든 시기를 겪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2년여간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했



토지 대전 서구 탄방동 666

다. 1997년부터 5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를 이끌며 LA다저스의 에이스로 거듭났다.

2001년 12월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 6500만 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를 체결했다. 당시 구단 역대 투수 최고액에 계약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적 후 허벅지, 허리, 햄스트링 부상을 시달리며 이적 첫해 9승 8패, 2003년 7경기 등판 1승 3패 등 약 3년 반 동안 68경기 22승 23패 평균자책점 5.79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1년 반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2005년 7월 일명 '떡튀' 오명을 쓰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트레이드됐다.

하지만 박찬호 사전에 포기란 없었다. 우직하게 훈련 또 훈련하며 뉴욕 메츠, 휴스턴 애스트로스 등 여러 팀을 거쳐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빅리그 통산 124승 98패 평균자책점 4.36의 기록으로 아시아 최다승 투수 기록을 세우며 '코리안 특급' 별칭을 얻었다.

국가대표도 활약해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06년 창설한 WBC 대회 4강 신화를 이끌었다.

야구계에 큰 업적을 남긴 뒤 2010년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감하고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프로야구(NPB) 오릭스 버팔로스에 입단해 활약했다. 2012년 시즌 한국 KBO 리그로 돌아와 고향팀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었으며 이 팀에서 2014년 선수 생활을 마쳤다.

은퇴 후에는 예능과 해설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MBC '진짜사나이', SBS '빅피쳐 패밀리', SBS '정글의 법칙', KBS2 '축구 야구 말구', MBC '쓰리박 : 두 번째 심장' 등에 출연했으며 KBS '2020 도쿄 올림픽'과 올해 열린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특별해설위원으로 화려한 입담을 자랑했다.

한편 지난달 전 야구선수 오재원의 '박찬호 공개 비란'으로 화제가 된 박찬호가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의 토지 1940.2㎡(약 586.91평)를 소유하고 있다. 200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3㎡(1평) 당 450만 원대에 분양받았으며 현재 시세는 9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위치는 대전도시철도 탄방역 5번 출구에서 50m 떨어진 초역세권이다. 아울러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 요지로 꼽힌다.

이동원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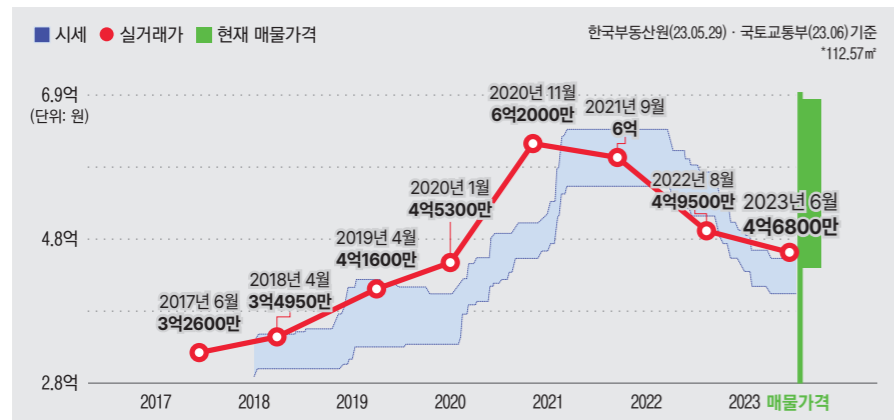


박찬호 前 야구선수

뉴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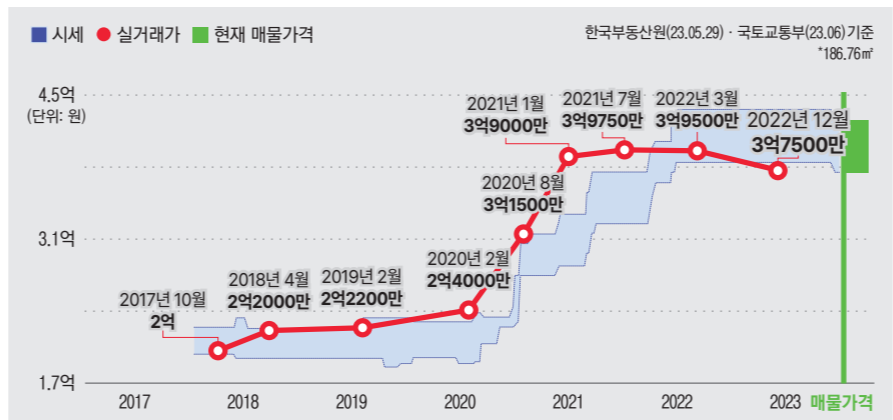
## 도안신도시수목도

대전 서구 도안동 1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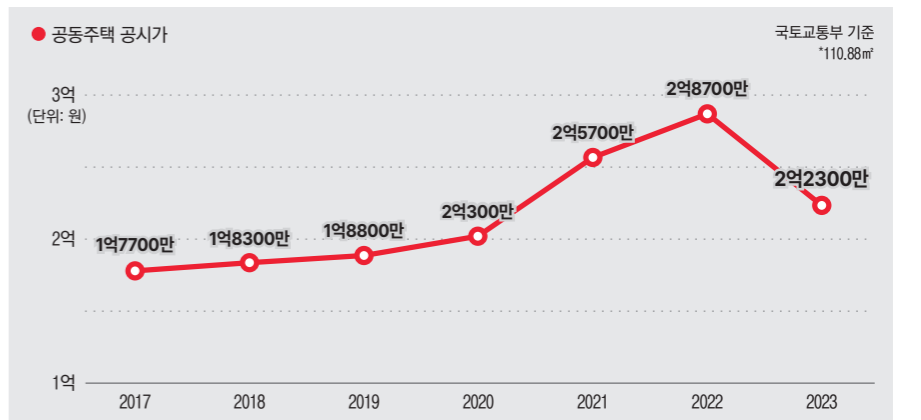
## 정림우성1단지

대전 서구 정림동 584



## 삼성래미안

대전 서구 가창동 55



## 채계순

전대전시의회회의원



채계순 전 대전시의회 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대전여성민우회 여성상담실장, 성과인권위원장과 공동대표외에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장,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노티나무' 소장, 대전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충청권역 부단장 등을 지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정치인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 세컨드(에인)"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만 채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정성욱

현)금성백조주택 대표이사 회장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대표이사 회장은 6·25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형제들과 힘겨운 삶을 살았다. 10대 시절 가구공장에 취업해 기술을 배운 뒤 건설업체에서 일하다가 1981년 2월 대전에서 직원 4명으로 금성백조를 창업해 주택사업을 시작했다. 설립 초기에는 대전 지역 소규모 택지를 준공하며 기업을 키웠고 1990년 서울 마포구의회 의사당 시공을 맡으면서 활동 반경을 넓혔다. 1994년 대전 지역 내 1260가구의 다모아아파트 시공을 맡으면서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이후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무리 없이 넘겼으



며 2000년대 들어서 아파트 브랜드 '금성백조 에미지'와 프리미엄 상업시설 브랜드인 '에비뉴스완' 등을 선보이며 제2의 도약에 나섰다.

2017년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에미지 뉴스테이,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역 에미지 등을 건설해 수도권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 유미

전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유미 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시 아동복지관 과장, 어린이재단 대전지부 팀장, 서울시구로구 노인복지관 팀장(사업부장), 경기 광명자활 후견기관 과장,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 본부장, 대전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을 지냈다. 1983년 5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들어가 꾸준히 복지현장을 누볐다. 2019년 11월 대전복지재단(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취임해 "조직의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출신 복지전문가로서 사회복지현장과 많은 소통을 하던



서 올바른 재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회복지서비스원의 부적절한 채용 과정, 회계 부정, 직원 간 갑질 의혹 등 각종 제보가 이어져 그해 8월 시 감사위원회의 기관 감사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임기 종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심사 통과 테니스장 32면 조성

####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9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은 중구 안영동 400-1번지 일대 7만5633.9㎡ 부지에 실외테니스장 22면, 실내테니스장(연면적 9639㎡, 배드민턴 겸용) 10면 등 총 32면의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체육 분야 공약 사업으로 시는 3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대전시는 스타 광역시 대비 크게 부족한 공공테니스장 확보 필요 △충남대 문화테니스장, 한밭정구장 폐쇄로 테니스장 공급 여건 악화 △전국대회 가능한 하드코트 테니스장 확보 시급 △향후 준공 후 운영 시 양호한 운영수지 △사업 장기



안영생활체육단지 조감도. 대전시

화로 조속한 민원 해소 등을 강조하며 중앙투자심사에 적극 대응했다.

한편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 이용률은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 올림픽테니스장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된다. 32면의 테니스장이 준공되면 시민 여가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국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3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기자 dhjung@skyedaily.com

### 김덕현 군수, 서울~연천·포천~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

#### 경기도 연천군

김덕현 연천군수가 9일 서울~연천 및 포천~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3차 정기회의 및 국토교통부 간담회'에 참석해 시·군 현안 사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하고 경기 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021~2025)'에 따라 남북5축으로 명명됐으며 도로 길이 50.7km, 총사업비는 2조 805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이날 도내 유일한 인구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인 연천의 현실을 설명하며 서울~연천 및 포천~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3차 정기회의 및 국토교통부 간담회가 9일 열렸다. 연천군

이와 함께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를 건의했다.

김 군수는 "남북 교류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연천 고속도로 2024년 사전조사 용역비 반영과 함께 포천~철원

고속도로 용역시 연천지선 반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3차 정기회의 및 국토부 간담회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총 2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정도현기자 dhjung@skyedaily.com